

2020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특집 We Act for You

청년센터 WAY - 우리는 당신을 위해 행동합니다

청년센터 WAY 발대식

청년재무상담 지원사업 (생활자립지원)

청년상담센터 워드WITH (마음건강지원)

사람책방 (경험역량지원)

목차

특집

"We Act for You"

청년센터 WAY - 우리는 당신을 위해 행동합니다.	3
기윤실 청년센터 WAY 발대식	8
청년재무상담 지원사업 (생활자립지원)	10
청년상담센터 위드WITH (마음건강지원)	12
사람책방 (경험역량지원)	14

더 높은 책무성

[자발적불편운동]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 슬기로운 소비생활	15
[교회신뢰운동 - 좋은나무] 기본소득, 어떻게 볼 것인가?	17
[연대 - 협력] 대화모임 - 분열된 사회와 교회의 책임	20

더 깊은 투명성

4~6월 재정보고, 후원자명단	23
------------------------	----

더 넓은 공공성

활동보고 · 활동계획 / 활동스케치(활동가 여름 워크샵)	24
전국기윤실협의회 현황 / 주소록	27
2020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28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섬기는' 사람들



이사 백종국(이사장) 정병오 이의용(부이사장) 강석창 권장희 권혁률 김경수 김양재 김정태 김중구 김홍섭 박제우 박종근 방선기 배종석 송인수 송태근 왕보현 유해신 이문식 임성민 장동민 정현구 조수진 조주희 조홍식 주광순 지용근 최규창 감사 황병구 자문위원회 손봉호(위원장) 강영안 확장배 김경섭 라영환 손인용 이동원 이장규 이진오 전재중 황준성 공동대표 정병오 배종석 정현구 상임집행위원회 정병오(공동대표, 위원장) 배종석 정현구(공동대표) 신동식(자발적불편운동본부장) 조성돈(교회신뢰운동본부장) 이상민(좋은사회운동본부장) 목광수(바른가치운동본부장) 박선영(청년운동본부장) 고재길(기독교윤리연구소장) 이재민(사회복지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상덕 김성경(상집위원) 자발적불편운동 김희경 박정우 박제우(기획위원) 교회신뢰운동-좋은나무 노종문(편집주간) 강영안 권수경 성영은 손화철 송용원 옥성득 박미낭(편집위원) 좋은사회운동 설성호(부채해방운동 팀장) 김병규(공명선거운동 팀장) 김정태(윤리적투자운동 위원) 정종욱(낙태죄헌법불합치후속활동 팀장) 김진우(섬이있는교육 팀장) 청년운동 구자창 김민영 백종원 신근범 우미연 이용호 조혜진 최준호(위원) 청년센터WAY 박선영(센터장) 김성경 김현아 신근범 조혜진 최진호(운영위원) 청년상담센터 위드WITH 곽은진 김성경(공동소장) 안혜용 이송학 이수인 최정희 박선영 김현아(운영위원) 기독교윤리연구소 고재길(소장) 사회복지위원회 조홍식 이재민(공동위원장) 교사모임 한성준(대표) 사무처 김현아(팀장) 문형욱 윤신일 최진호(간사) 전국기윤실협의회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익산 인천 전남 전주 정읍 진주 청주 / (준비지역) 김해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0년 3분기호 통권 276호
 소재지 04382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54길 30, 세대빌딩 401호
 전화 02-794-6200 팩스 02-790-8585
 E-mail cemk@hanmail.net 홈페이지 www.cemk.org
 발행인 백종국 발행일 2020. 7. 29
 편집인 정병오 편집 최진호 디자인 송아현

보고기간 2020년 5월 2일~2020년 7월 28일 까지의 활동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타 본 소식지는 창조세계를 돌보는 마음으로 재생종이에 인쇄했습니다.

표지종이는 고지율(재생필프 함유율) 55%(사용전)의 양코르지이며, 본문종이는 고지율20%의 그린라이트지를 사용하여 인쇄하였습니다. 형광증백제, 염소계 표백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We Act for You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청년센터 WAY 출범에 즈음하여



박선영 _ 기윤실 청년센터 WAY 센터장
(한국체대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교수)

2020년 7월 17일, <청년센터 WAY(We Act for You)>가 드디어 출범했습니다. 비록 준비기간은 짧았지만 결코 우연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셨다고 믿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 또한 믿습니다.

<청년센터 WAY>는 We Act for You의 줄임말로 청년센터의 활동 방향을 함축한 것입니다. 우리가 출범한 <청년센터 WAY>가 청년을 위해 일

F
O
R
Y
O
U



하고 함께 하겠다는 것이며, 우리가 꿈꾸는 청년 인재상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기윤실 청년센터 WAY>를 거쳐 갈 청년들이 또 다른 청년, 더 나아가 이 사회와 이웃을 위해 일하고 함께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센터 이름에 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WAY'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그 길을 걸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축복의 통로로 안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년센터 WAY>는 예수님의 길이자 축복의 통로이자, 우리의 청년들에게 그 길을 함께 걷자는 초대장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청년 세대에 대한 많은 사회적 이슈와 과제를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청년들의 손과 발이 되는 청년센터의 설립 및 운영은 시대적·사회적 과제에 응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치고 힘든 청년들이 힘을 얻고 쉬었다 가는 편한 휴식처 같은 곳이자, 인생의 바다를 향해 항해를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도전과 용기를 주는 곳이 되고 싶다는 원대한 꿈도 청년들과 더불어 꾸고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위기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청년센터, 청년을 세우고 살리는 청년센터로의 도약을 위해 작은 한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부디 기억해주시고 기도와 관심으로 함께 걸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윤실이 한국 사회 기독교시민운동의 선구자와 본보기가 되어온 것처럼, <청년센터 WAY> 또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였다.' 칭찬 받을 수 있도록 청지기적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겠습니다.

이제 막 출범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걸음을 내딛는 중입니다. 이미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에 감사드리며, <청년센터 WAY>를 통해 꿈꾸고 계신 하나님의 높은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통로인 <청년센터 WAY>가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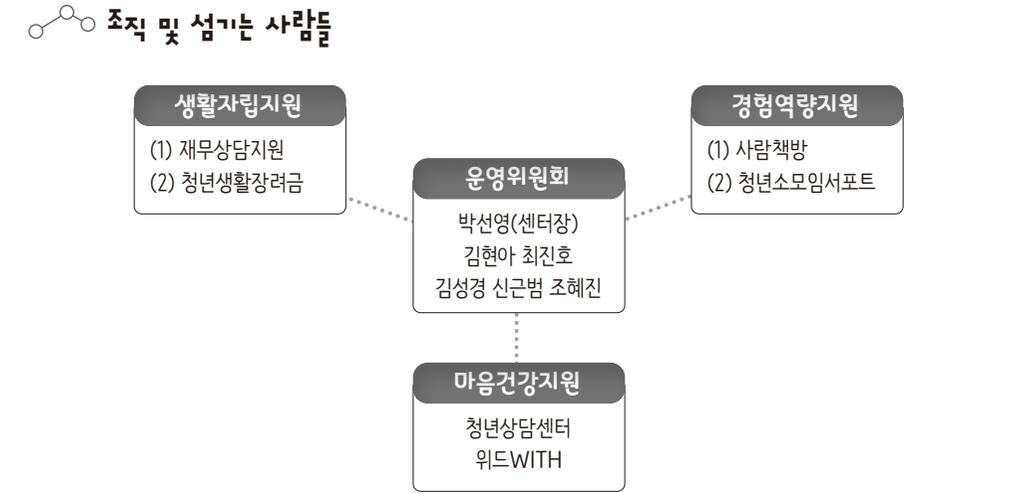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청년센터장 박선영 올림



그 동안 청년부채제로캠페인/자체휴강프로젝트/청년포럼 등을 전개하며 청년 이슈에 대응해왔던 기운실은,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들의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에 보다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더하고자 합니다. <기운실 청년센터 WAY>는 이 시대 청년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재정, 멘토링, 소모임, 심리상담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청년들과 동행하겠습니다.

청년센터 WAY 사명 및 핵심가치

<기운실 청년센터 WAY>는 청년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동행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며, '포용, 상생, 자립, 도전'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기운실 청년센터 WAY 운영위원회]

- | | |
|-------------|--------------------------------------|
| 센터장 | 박선영 (기운실 상임집행위원, 한국체대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교수) |
| 운영위원 | 김현아 (기운실 팀장) |
| | 최진호 (기운실 간사) |
| | 김성경 (기운실 상임집행위원, 상담센터 위드WITH 공동소장) |
| | 신근범 (기운실 청년위원, 홍대부고 교사) |
| | 조혜진 (기운실 청년위원, 사회연대은행 대리) |

설립 경과



<p>발의 및 기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4월 2일 첫 논의>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을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배종석, 정병오(공동대표), 김현아, 최진호(활동가), 박선영, 이상민(운동본부장) 화상 회동. • <2020년 4월 9일, 13일, 20일, 24일> 매주 화상회의를 통해 연구 및 기획을 진행하던 중,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청년센터'를 설립하기로 함. • <2020년 4월~5월 지원> 시범적으로 코로나19피해지원 기금을 통해 대구경북 지역 청년들의 월세지원과 (근로상실 1인가구) 생활비지원 (대구경북기독교교회 대학생)을 실시. (총 120명, 6천만원, 주관-대구기윤실) • <2020년 4월 24일> 심층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상담센터를 구성하고 상담사와 운영위원을 선임.
<p>상임집행위원회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5월 8일> 청년센터 논의사항을 상임집행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함.
<p>청년센터 사업 및 운영위원회 확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5월 25일> 청년들의 실제적 필요와 상황을 알기 위해 타단체 탐방, 기윤실 청년위원회와 미팅. • <2020년 6월 15일> 청년센터의 주사업을 생활경제지원, 진로 및 커뮤니티 지원, 심리상담지원으로 정함. • 기윤실의 매트릭스/네트워크 조직(부설기관)으로서 청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센터장과 운영위원을 선임.
<p>상담센터 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5월 29일, 6월 17일, 7월 8일> 상담 지원 관련 논의 및 내부 세미나를 통해 청년에게 적합한 상담방식과 청년들에 대해 토론하고 공부함.
<p>이사회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7월 7일> 청년센터 논의과정 및 사업계획에 대해 기윤실 제 2차 이사회에 보고하고 자문을 얻음.
<p>출범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7월 17일> 기윤실 청년센터 WAY 출범식을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함.



지원 내용



생활지립지원

경제적 불안과 지친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자유롭고 특별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년재무상담지원사업

학자금대출, 주거부채, 고용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재정 관리 상담과 생계 위기 해결을 돕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년생활장려금

청년들의 지친 일상에 찾아갑니다. 몸과 마음을 챙기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생활 맞춤형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에게 격려와 기회를 선물합니다.



경험역량지원

처음 가보는 길, 막연한 미래 앞에 선 청년들에게 먼저 걸어 본 경험을 공유하고, 혼자가 아닌 서로, 그리고 함께 고민하고 도전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지원합니다.

사람책방

청년들의 진로와 일상의 고민에 도움을 줄 '사람책'을 연결해드립니다. 관심있는 분야의 '사람책'이 가진 경험과 지혜를 공유해보세요. 사람과 사람, 관심과 경험이 만나 가치 있고 의미있는 소통이 됩니다. 청년들에게 자신의 이야기와 응원을 전하고 싶은 분들은 '사람책'이 되어주세요!

청년커뮤니티서포트

대화/학습/실천하는 청년소모임에 참여해주세요. 또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소모임을 지원합니다. 느슨하지만 자발적이고 건설적인 커뮤니티를 통해 청년들은 서로 영감을 얻고 확장되며, 성숙합니다. 청년들의 이야기와 활동을 적극 서포트합니다.



마음건강지원

삶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여러 상황으로 인해 불안과 우울, 외로움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건강회복을 지원합니다.

청년상담센터 위드WITH

(We Inspire The Happiness of young people)

심리 진단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청년들이 자신의 내면과 주변을 마주하며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전인적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1:1 개인상담
- 가족/공동체 집단상담
- 교회/기관 찾아가는 세미나

청년센터WAY

출범식



청년센터WAY의 출범식이 7월 17일(금) 오전 11시 높은뜻광성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페이스북, 유튜브) 생중계로 송출되었으며, 소수의 관계자들이 정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출범식에 참여하였습니다. (출범식 영상은 기윤실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축전 영상으로는 임성빈(이사), 이진오(인천 실행위원장), 이장호(높은뜻광성교회 목사), 이슬이(청년회원), 김정태(좋은교사대표), 김다혜, 정민호(복음과상황 기자)님이 함께해주었습니다.

격려사에서 배종석(공동대표)는 청년센터의 창립취지에 대해 “청년들이 고용이 없는 성장시대,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취업이 어렵고, 여러 가지 변화와 어려움이 있으며, 정신적인 어려움까지 호소되는 상황에서, 개신교가 이를 수용하고, 극복하고 청년들에게 다가가기보다는 침묵하거나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기윤실 청년센터WAY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다만 몇 사람이라도 청년들이 실제적으로 변화를 겪고 세상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청년들의 동반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청년센터WAY의 앞 길을 격려했습니다.



그간 청년센터 WAY가 출범하게 된 경과보고에 대해서는 김현아(팀장)이 설명해주었습니다. 김 팀장은 “꼬박 3개월 기간 동안 많은 분들과 만나고 준비하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주는 사업이라는 마음을 받아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이후 순서로는 박선영(WAY 센터장), 곽은진, 김성경(상담센터위드WITH 공동소장), 상담센터위드WITH 운영위원의 위촉식과 청년센터 WAY의 소개가 있었습니다.

박선영(센터장)은 “두렵고 떨리고 기대되는 마음이 있으며”, “청년센터WAY의 취지와 비전은 WAY(We Act for You)에 담겨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박 센터장은 “WAY가 청년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지만, 청년들이 성장하는 가운데 다른 청년들을 돌보고, 국가와 사회의 귀한 시민과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았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박 센터장은 “WAY가 숨겨진 의미로는 ‘You are ok’, ‘함께할게’, ‘괜찮아’, ‘같이갈게’의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마음을 품고 WAY를 설립하였고, 운영하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한 내용은 김서로 팀장(생활자립지원), 김현아 팀장(경험역량지원), 곽은진 공동소장(마음건강지원)이 설명해주었으며, 출범선언을 끝으로 WAY 발대식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을 향한, 청년들과 같이 진행되는 청년센터WAY의 활동을 기대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원실**



○ [청년센터 WAY- 생활자립지원]

청년재무상담 지원사업

코로나19 및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 앞에 청년들은 살 길, 갈 길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질병, 사고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청년들은 제 2금융권, 대부업체, 대출사기 등에 의지하게 되고, 더욱 더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안정적인 수입 없이 고정적인 생활, 주거비로 인한 경제적 불안은 쉬이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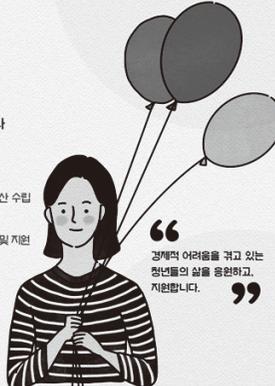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품고 곳곳이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재무상담 및 지원을 통하여 작은 버팀목이 되어주자 청년재무상담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주변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청년 분들에게 소개해주시고, 청년의 삶에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가심
그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0 청년재무상담지원사업

여러 가지 금융고민/부채문제를 품고 있는 청년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맞지 않아 고민하고 있는 청년
돈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관심 있는 청년
돈 고민 함께 이겨내요

- 모집기간
2020년 6월 - 11월
(편성된 예산이 소진시 조기종료 될 수 있습니다.)
- 참여대상
수도권 거주 만 19세 ~ 39세 청년 누구나
- 지원내용
- 재무상담 및 지원
소득 및 지출파악, 재무상환 및 저축계획 등 소비예산 수립
- 재무상담 및 조정
고급리·다중부채, 워드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안내 및 지원
- 신청방법
<http://bit.ly/2020청년재무상담>
- 문의
070.7019.3757
cemk@hanmail.net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삶을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

🗨️ 모집대상

만 19세 ~ 39세 수도권 거주자(2020년 1월 1일 기준)

🗨️ 모집기간

2020년 6월 9일 ~ 11월 30일까지(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재무상담

소득 및 지출 파악, 채무상환/저축계획/소비예산 수립 등 코칭 및 안내

| 채무상담

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을 통해 채무비용 조정하고, 무이자전환대출금/소액현금지원 등을 통하여 현금흐름을 개선(채무상담 대상자분들은 재무상담과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 안내사항

- ☐ 상담은 전문재무 상담사분들과의 대면상담으로 진행되며, 월 1회 총 3번 진행하면서 재무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코칭을 드립니다.
- ☐ 본 상담/지원은 청운교회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상담비는 무료입니다.
- ☐ 신청 후 3일 안으로(주말제외) 상담 안내 전화를 드립니다.
- ☐ 본 사업은 상담을 통한 재무건강성 회복에 목적이 있습니다. 상담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하실 분들만 신청해주세요.

🗨️ 이런 분들이 신청해주세요

-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 👉 재정건강성을 회복하고, 돈을 잘 관리하고 싶은 분들
- 👉 고금리부채, 다중 부채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 👉 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

🗨️ 아래와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수입 및 지출을 파악하고, 올바른 소비규칙을 세울 수 있습니다.
- ✓ 채무조정 전반의 과정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 ✓ 부채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의 및 신청방법

- ☑️ 문의 :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070-7019-3757, cemk@hanmail.net
- ☑️ 신청링크 : <http://bit.ly/2020청년재무상담>

○ [청년센터 WAY- 마음건강지원]

청년상담센터 위드WITH



우리 시대 많은 청년들은 관계의 어려움, 강요된 생애주기의 무게, 안전한 공동체의 부재, 사회 환경의 자극, 다루기 어려운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과 우울, 외로움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상담센터 위드WITH'는 일상과 마음이 버거운 청년들과 함께하는 길벗입니다. 심리진단,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청년들이 자신과 마주하며 스스로를 돌보고, 전인적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여 마음 건강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당신에게 행복을 불어넣어 드립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위드WITH 프로그램

- | **개인상담/심리검사** 전문상담사와의 1:1 심층 상담 및 심리검사
- | **집단상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며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그룹상담
- | **찾아가는 세미나** 정서, 심리, 자아, 관계 등 다양한 주제로 교회 및 기관 강의와 워크숍 진행

1:1 개인상담 안내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해 전문 상담사의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상담 회기 : 5회를 기본으로 하며, 연장(최대 5회) 가능
- ✓ 상담 시간 : 일주일에 한번, 회당 50분
- ✓ 상담 비용 : 내담자 참가비 - 회기 당 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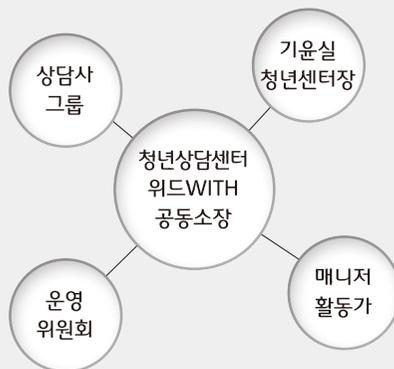
청년 내담자에게 책임있고 높은 수준의 상담을 보장해드리기 위한 정책으로 참가비를 받고 있습니다. 상담센터는 청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조비(4만원)를 지원합니다.

상담 참여방법

1. 온라인 상담신청서에 본인의 소개와 간략한 상담의뢰 내용을 적어 보내주세요.
2. 접수된 신청서를 토대로 사전 전 화면담을 진행하며, 상담일정과 장소를 조율합니다. 상담동의서를 작성하시면, 전문 상담사 배정 후 접수 완료 안내 메일을 드립니다.
3.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섬기는 사람들



청년상담센터 위드WITH 공동소장

- 박은진** 심리상담센터 섬 SHIM, 한국정서치유연구소 소장,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외래강사
- 김성경** 육구코칭연구소(부모교육디자인연구소) 소장, 기윤실 상임집행위원



청년상담센터 위드WITH 출범 준비 세미나

문의 및 신청방법

- ☑ 기윤실 청년상담센터 위드WITH 070-7019-3754, 3756 cemk@hanmail.net
- ☑ 홈페이지 www.cemk.org/way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cemk_way
- ☑ 신청링크 : <http://bit.ly/cemkwith>

○ [청년센터 WAY- 경험역량지원]

사람책방

<사람책방>은 청년들의 진로, 일상의 고민에 도움을 줄 '사람책'을 연결해줍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사람책'과 만나 이들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해보세요.
 사람과 사람, 관심과 경험이 만나 '가치 있는 소통, 의미 있는 배움'이 됩니다.
 안전하고 유익한 경험공유 네트워크, <사람책방>에서 청년 독자들을 기다립니다!

이용방법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사람책 조회 후
 열람 신청서 작성하기



책방 매니저를 통해
 신청내역/열람규칙 확인하고
 사람책과 약속 정하기



사람책과 독자가 만나
 대화하고 피드백 남기기

‘사람책’ 지원



자신의 경험과 걸음을 나누며
 청년들을 응원하고 싶은
 ‘사람책’을 모집합니다.

문의 및 신청방법

- 070-7019-3754, 3756 cemk@hanmail.net
- 홈페이지 www.cemk.org/way
-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cemk_way

HumanBooks

사람책방



청년들의 진로와 일상의 고민에 도움을 줄 '사람책'을 연결하는 경험공유 네트워크,
 <사람책방>에서 청년 독자들을 기다립니다!

즐거로운 소비생활을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방법을 고민해보았습니다.

돌아봄	개인	소비 패턴 돌아보기 : 가계부 쓰고 불필요한 소비 줄이기
	교회	서로 돌아보는 교회 : 재정상황 및 소비체크리스트 나눠보기
이웃	개인	이웃을 살리는 소비 : 생필품은 꼭 동네 슈퍼에서 소비하기, 재난소득 기부하기
	교회	이웃을 살리는 교회 : 물품, 간식은 골목 상권 소비하기, 어려운 성도/이웃을 위해 목적인금 모으기
환경	개인	환경을 살리는 소비 : 택배, 과대포장 소비하지 않기
	교회	환경을 살리는 교회 : 교회 공간 절전하기
자발	개인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즐거로운 소비생활
	교회	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즐거로운 소비생활

즐거로운 소비생활을 위한
소비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	점수
개인	가계부를 쓰고 있고 매달 소비 패턴을 분석한다.	+5
	밤에 야식을 자주 시켜먹는다.(주 2회 이상)	-2
	새 상품 보다 중고 거래를 선호한다.	+3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꼭 사는 편이다.	-2
	아직 통지 않은 택배 상자가 몇 개 있다.	-3
이웃	아직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다른 제품으로 교체한 적이 있다.	-2
	카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3
	대형마트가 싸고 할인을 많이 하더라도 꼭 동네 마트를 이용한다.	+3
	안 쓰는 물건들을 이웃에게 나눔 한 적이 있다.	+3
	공정무역 제품이나,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기업 제품을 사용한다.	+3
환경	고민이 있는 친구(성도)를 위해 기게이 밥/커피를 산 적이 있다.	+3
	이웃을 돕기 위해 재정을 인출한 적이 있다.	+5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관 혹은 바른 가치를 가진 기관에 후원을 하고 있다.	+3
	재난 소득을 일부 나눔(기부)하거나 앞으로 할 계획이 있다.	+5
	온라인 거래를 통해 택배를 자주 이용한다.	-2
자발	플라스틱 제품과 과대 포장된 물건은 잘 사지 않는다.	+2
	외출 할 때 텀블러, 강바구니를 꼭 들고 다닌다.	+3
	핸드폰을 구입한지 3년 이상 지나더라도 고장 날 때까지 쓴다.	+3
	친환경 제품을 찾아서 구매한다.(저탄소인증, 탄소발자국, 대나무젓가락 등.)	+5
	업사이클 기업 제품을 사용하기 좋아한다.	+3
고기 보다는 채식을 선호한다.	+5	

점수 계산하기

-11~0점 : 절소하고 절제하는 삶이 이웃 사랑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살망하지 마세요! 이재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1~11점 : 때로는 나만을 위한 소비가 아닌 불만함을 감수하고 누군가를 돕는 소비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12~25점 : 이웃과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소비생활을 조금만 관리한다면 더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26~40점 : 즐거로운 소비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덕분에 이웃과 환경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41~57점 : 항상 잘 버려주고 이웃을 돌보고 환경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이웃과 환경 사랑에 감사할 것입니다!

‘즐거로운 소비생활’

즐거로운 소비생활은 나의 소비생활을 돌아봄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소비 습관을 돌아볼 때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이웃을 도울 수 있는지 어떤 소비를 해야 환경을 살릴 수 있는지 돌아 봐야합니다.

캠페인에 사용한 표에는 이웃과 환경을 위한 대표적인 실천사항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더해 각자가 느끼고 생각하는 자발적 불편 실천사항을 고민하고 살아내야 할 때입니다. ‘뉴노멀(new normal)’시대에 불편을 회원님들의 시각에서 고민하고 행동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불편이 우리 주변의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소비생활의 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자발적불편운동, 함께해주세요!

‘교회와 함께하는 자발적불편운동’은 전국기윤실험회와 함께, 연중 캠페인으로 진행됩니다.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신청교회로 등록해주시면 저희가 캠페인 포스터를 보내드리니 교회에 게시해주시고 함께 참여해주세요. 저희가 제안드리는 캠페인을 실천하시는 모습을 인증샷으로 남겨주세요. 그 외 창의적으로 진해하시는 자발적불편운동이 있다면 기윤실에 귀뜸해주세요. (cemk.org, 070-7019-3755) 



기본소득, 어떻게 볼 것인가?



글_홍중호(서울대학교 교수, 경제학)

기본소득은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일정 액수의 현금”으로 간략히 정의할 수 있다. 개념은 단순해 보인다. 하지만 왜 필요한지, 효과는 무엇인지를 따지기 시작하면 갈수록 복잡해진다. 일부 지역에서의 제한적인 적용이나 정책 실험을 제외하고 세계 어디에서도 현실화 되지 않은 제도라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쉽지 않다.

이 글의 목적은 기본소득을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세상에서 기본소득을 보거나 진보의 시각으로 접근하고 평가하지만, 기독교적 세계관의 궁극적 기준이 되는 성경은 이념서나 정책서가 아니기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기본소득 논의의 출발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질문이어야 한다.

기본소득 주창의 역사는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고, 현시점에도 백가쟁명식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먼저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 제도의 기본 구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대상은 개인이다. 정부가 특정 국가 혹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한다.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 단위로 급여를 지급하는 현행 기초 생활 보장 제도와 구별된다.

둘째, 방식은 무조건적이다. 생활이 어렵다든지, 실업 상태에 있다든지, 아동/청년/어르신에 속한다든지 하는 조건과 무관하다. 당연히 복지 수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자산 조사 혹은 적격성 검증은 없다.

셋째, 지원 금액은 동일하다. 가난하다고 더 주고, 부자라고 덜 주거나 안 주지 않는다.

넷째, 기간은 항구적이다. 정부가 지난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이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현금 지급이었음을 상기하면 차이가 명확해진다.

역사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기본소득을 자신의 관점에 따라 설파해 왔다. 최근에는 보편 복지에 대한 열망과 구조적인 경제 불평등 해결의 대안으로 진보 진영이 기본소득 정책을 좀 더 전면에 내세우는 추세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적 자유와 인간적 삶을 누리기 위해 모든 시민은 마땅히 적절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동안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1) 복지 전달 체계를 단순화하고 기존 복지 제도를 구조조정함으로써 행정 비용을 줄이고 복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2) 실업 급여가 개인으로 하여금 재취업할 의욕을 감퇴시키는 반면, 기본소득은 노동과 무관하게 지급함으로써 실업 급여 방식에 비해 근로 의욕을 증가시킬 수 있다.
- 3) 기본소득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과 서민은 물론, 보다 많은 국민의 복지 수준을 향상함으로써 복지의 포용성을 높이고, 이들의 자긍심과 행복감을 증진할 수 있다.
- 4) 자동화와 시로 인해 노동 수요가 줄어들고 있어 기존 고용 구조에서 탈락한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생계유지는 물론, 자기실현과 인간다움을 누릴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 5)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구매력을 확보해 줌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반면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비판도 봇물 터지듯 쏟아진다. 다음과 같이 핵심을 요약할 수 있다.

- 1) 복지란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제공함이 마땅한데, 생계유지를 위해 굳이 기본소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중산층과 부자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2) 기본소득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하려는 의욕을 약화시켜 경제 전체의 생산성과 부가 가치를 떨어뜨리고, 결국 세수 감소와 복지 축소라는 악순환을 야기할 것이다.
- 3) 이미 존재하고 있는 복지 제도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는 것은 기존 수혜자들로부터 심각한 저항과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 4) 추가적인 증세를 위한 세원 발굴이나 세율 인상 역시 강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결국 재원 확보를 위한 현실성 있는 대안이 없다.

기독교인은 기본소득을 어떻게 봐야 할까? 그 의의와 한계를 ‘구제’와 ‘노동’이라는 키워드로 살펴보자. 잠언 11장 24절은 “흠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라고 말하고 있다. 성경은 성숙한 믿음의 징표로 이웃을 위한 충분한 물질적 도움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 이 말씀으로부터 국가는 경제적 약자에게 복지와 사회 안전망을 제공할 책무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발전과 행복을 증진할 수 있다는 확장된 해석이 가능하다. 물론 유능하고 신뢰성 있

는 정부를 전제로 한다. 기본소득은 구성원들로부터 확보한 재원으로 모두에게 동일한 복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낙인 효과를 제거하고 국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좋은 취지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공동체적 구제의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어느 정치인은 모든 국민에게 연 20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출발점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총 10조 원이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이미 개인당 한번에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국민에게 월 1만 6천 7백 원의 기본소득은 별다른 감흥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최저 생계비를 감안하여 월 50만 원(4인 가족 기준 월 200만 원)을 제공한다면 연간 300조 원이 필요하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국제 수입이 약 293조 원이었으니 지금 수준보다 세금을 두 배 이상 거둬야 실행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말은 쉬우나 실행하기는 어렵다. 기본소득이 책임성 있는 복지로 자리 잡으려면 재원 확보에 대한 국민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신구약을 통틀어 성경은 노동의 가치를 강조한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일하셨고, 인간에게도 노동을 통해 창조 사역에 동참할 것을 명령하는 장면이(창 2:15)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타락으로 인해 노동에 고통이 덧붙여진 것은 사실이나(창 3:17), 동시에 성경은 노동에 수반되는 보상의 의의와 보람을 노래하고(시 126:6), 정당한 노동 없는 대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살후 3:10).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일과 직업을 각자에게 소명으로 허락하신다고 믿는다. 나아가 노동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 6:33)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에 따른 보상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마 6:33) 것임을 약속받았다. 이 말씀에 따르면 노동이야말로 최고의 복지다.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선교에 헌신하면서도 교회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비량(自費糧)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했다.

19세기 초 영국의 러다이트 운동으로 촉발된 기계화와 자동화에 대한 두려움은 오늘날 더욱 강화된 듯 보인다. 로봇과 AI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란 비판론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고용 없는 성장의 고착화 측면도 인식해야 하지만, 달라진 산업 생태계에서 새로운 일자리 생성 가능성을 모색하는 일도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에서 일하는 기독교인은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섬김의 실천이라는 책임 의식을 지녀야 한다. 노동 유무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기본소득을 모두의 권리로서 제도화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 원리에 부합하는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이 ‘정책’의 대상에서 ‘정치’의 영역으로 아무 여과 없이 옮겨가는 오늘의 현실을 우려한다. 더 풍족하고 더 편하게 살게 해 주겠다는, 정치인의 달콤하지만 무책임할 수 있는 언사의 진위를 분별해야 한다. 출애굽 후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반복적으로 드러낸 탐심의 결과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 논쟁을 보며 기독교인은 ‘선의에 매몰된 낭만성’과 ‘책임성을 상실한 인기영합주의’를 경계하고 선별하는 지혜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기본소득 논의를 둘러싼 이러한 ‘거품’이 빠진 뒤에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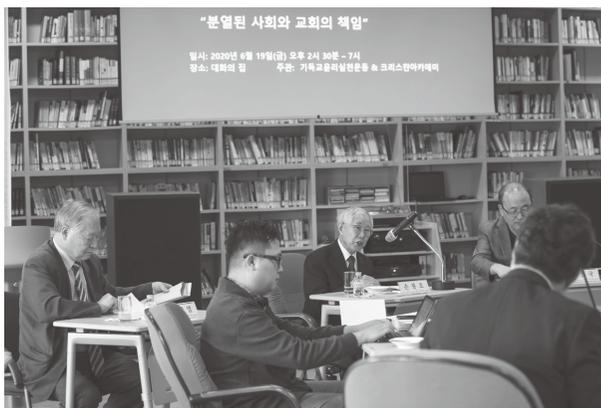


[대화모임]

분열된 사회와 교회의 책임

지난 6월 19일(금) 오후 2시 30분 평창동 대화의 집(종로구 평창 6길 35)에서 기윤실측 초청 인사(9명)와 크리스찬 아카데미측 초청 인사(10명)와의 대화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날 주제는 “분열된 사회와 교회의 책임”으로 김경재 명예교수(한신대), 손봉호 석좌교수(고신대) 발제를 시작으로 배종석 공동대표(기윤실), 이상철 원장(크리스찬아카데미)의 논찬과 이후 참여자들의 대화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소식지에는 손봉호 자문위원장의 발제문을 요약하여 공유합니다.

※ 전체 자료집은 기윤실 홈페이지(cemk.org)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열된 사회와 교회의 역할”, 손봉호 자문위원장

한국 사회가 극도로 분열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런 자해행위가 계속되는가? 도산이 지적한 것처럼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만 단결해도 우리 사회는 벌써 단결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저쪽”이 고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입장은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자신도 그 “지조”를 끝까지 지켜야 사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는 거룩한 확신으로 무장되어 있다.

2018년 여론조사기관 Ipsos가 BBC의 의뢰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가장 큰 갈등요인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61%)으로 조사대상 27개국 평균 44%, 유럽 평균 20%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지금 실제로 경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한국 기독교는 용서와 화해, 사랑과 희생이 핵심인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명이고 존재의이므로 한국 사회에 매우 필요한 사회통합에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고 마땅히 그렇게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교회 자체가 매우 분열되어 있고 도덕적 권위를 많이 상실해서 사회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종교들의 신뢰도 조사에 의하면 가톨릭이 30%, 불교가 26.2%의 신뢰를 받는 반면에 개신교는 18.9%밖에 받지 못하고, 그것도 2009년에는 26.1%, 2013년에는 21.3%로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통합을 시도하기 전에 그렇게 할 자격 혹은 능력부터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모두 성경이 분명하게 제시한 교회의 본질에 충실할 때 가능하다. 즉 교회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주위 이방민족들의 우상을 따라 섬기는 것이었다면 현대 교회의 타락은 세상이 섬기는 돈, 권력, 명예란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이런 세속적 가치, 특히 돈의 가치를 상대화하지 않고는 어떤 교회도 순수할 수 없다.





상대적으로 쉬운 것은 교계의 연합이다. 미국 복음주의 교회의 최대연합체인 “복음주의 전국 연합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가 제정한 “국가의 건강을 위하여”(For the Health of the Nation)이란 공적 문서는 “신실한 복음주의적 정치 참여는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행동지침을 가져야 한다”면서 “생명존중, 가난한 자 보호, 가정보존, 인종정의, 성적순결, 자연보호, 평화, 가난한 자를 위한 정의”를 그 원칙으로 제시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보수든, 진보든 이 정도의 행동지침에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원칙들을 내 세우고 추구하되 이를 현실 정치와 연결시켜 성취하려는 시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어야 한국 교회의 통합은 가능할 것이다.

사회의 신임을 얻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도덕적 실천이다. 앞에 언급한 기윤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 교회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구제 및 봉사활동 27.9%, 환경, 인권 등 사회활동 8.4%, 교육사업 4.2%라 대답한 반면 윤리와 도덕적 실천운동이라는 응답은 48.8%였다. 사실 한국 교회는 구제, 봉사, 인권과 환경운동 교육활동에는 비교적 적극적이고 어느 정도 공헌도 했다. 그러나 그런 활동으로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훨씬 더 필요한 것은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인데 거기에 실패한 것이다. 돈, 명예, 권력 등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우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우상을 버리는 길은 멀고 험하다. “많이 가지는 것이 선”인 (유동식 교수) 무속종교의 긴 그림자, 유물론적 물질주의가 지배하는 오늘의 세계문화, 이웃의 권리와 생명보다 나의 쾌락이 더 중요한 사회 분위기에서 욕망을 절제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보통 신앙으로는 결코 쉽지 않다.

하나의 가능성은 한국 교회에 “비스킷”이 없어지는 것이다.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지는 것이 십자가의 역설이 아닌가? 어차피 순수한 참 그리스도인은 소수일 수밖에 없다. **그리스**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재정보고

2020년 04월 01일부터 6월 30일 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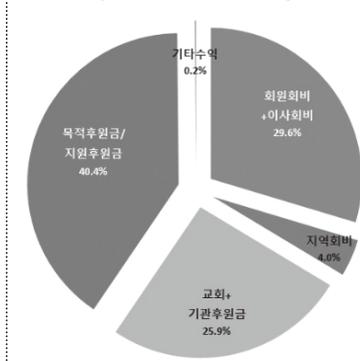
과 목	공익목적사업	
I. 사업수익 ㉔		98,268,448
1. 회비수익 (회원회비/이사회비/지역회비)	33,046,400	
2. 일반기부금수입 (교회/기관후원금)	25,410,000	
3. 특정기부금수익 (목적후원금/지원후원금)	39,655,000	
4. 기타수익 (사업후원금/등록비/자료판매비/이자수익)	157,048	
II. 사업비용 ㉕		130,853,949
1. 사업수행비용 (사업인건비, 운동본부/자치기구/협력운동 사업비 등)	100,918,281	
2. 일반관리비용 (행정인건비, 사무관리비, 사무처운영비 등)	20,281,239	
3. 모금비용 (회원관리비, 소식지제작비, 지역회비전달금 등)	9,654,429	
III. 사업외수익		245,770
1. 노동부지원금	228,920	
2. 잡이익	16,850	
IV. 사업외비용		10,000
1. 잡손실	10,000	
수익 총계		98,514,218
비용 총계		130,863,949
당기 순자산의 증감		-32,349,731

* 코로나19 긴급모금 전달액 4월분 71,920,000원은 사업수행비용에 포함되어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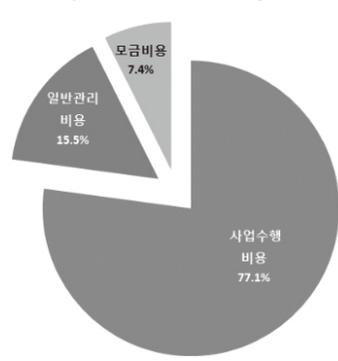
*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순자산은 32,349,731원 감소했습니다.

* 2020년 6월 30일 현재 잉여금은 73,070,129원입니다.

[4~6월 사업수익 분포]



[4~6월 사업비용 분포]



*비용 분류 주석

1. 사업수행비용은 법인의 사명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2. 일반관리비용은 인사, 재무, 감독, 관리 등의 제반 비용입니다.
3. 모금비용은 회원정보관리 및 서비스 소식지, 홍보행사 등 기부금 관련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2020년 4월~6월 개인 후원자 명단

개인후원금 29,136,400 (578명)

강명길 강민봉 강병관 강석창 강승문 강승우 강승철 강영안 강요셉 강윤주 강은경 강은정 강일구 강진미 강진호 강철원 강춘근
 강현주 강호인 강흥구 강희철 고승표 고은정 고재길 고정한 공미자 공지태 공헌 광상배 광종철 광창대 구예리 권명희 권아현
 권오재 권용태 권창희 권혁률 금은미 기세충 김강석 김경래 김경미 김경숙 김경천 김경호 김광환 김규성 김근원 김기섭 김기협
 김대인 김대인 김동석 김동주 김동준 김두희 김명희 김만옥 김말순 김명은 김명찬 김문수 김미숙 김미혜 김민숙 김민아 김병일
 김상규 김상기 김상범 김상윤 김상은 김상인 김상정 김상환 김선욱 김선희 김선희 김성경 김성기 김성봉 김성숙 김성웅 김성천
 김성태 김세진 김수희 김승섭 김신근 김연기 김연수 김영모 김영봉 김영시 김영아 김영철 김영철 김완진 김요열 김용미 김원섭
 김윤수 김은수 김은영 김은영 김은이 김인빈 김인선 김인숙 김재환 김재환 김정미 김정백 김정욱 김정원 김정태 김정한 김정형
 김정훈 김종필 김종호 김주현 김준영 김준철 김지혜 김진표 김철성 김충환 김태식 김태환 김태훈 김학동 김학빈 김한나 김현경
 김현아 김현태 김형신 김형중 김혜경 김혜경 김홍섭 김홍환 김효진 김홍식 김희숙 김희완 김희정 니영식 니영진 나종주 남궁설
 남성태 남재환 남제현 남준일 노광섭 노대웅 노승아 노치준 류은혜 류중우 맹경순 맹주환 명호중 목광수 문경환 문규 문규영
 문덕암 문석윤 문정욱 문현주 문형욱 민영운 박경라 박경춘 박경희 박득훈 박명곤 박명규 박명배 박미리 박민선 박복배 박상돈
 박상호 박서현 박선영 박선이 박성령 박성일 박세진 박수경 박수정 박수창 박원주 박윤정 박은미 박은지 박은하 박의진 박재장
 박재한 박정민 박정우 박정임 박제민 박재우 박종구 박종명 박종민 박종운 박종원 박종진 박주현 박지연 박진욱 박진희 박찬기
 박철 박태영 박택규 박판근 박혜리 박혜윤 박호웅 박환래 박환승 배복희 배재수 배정운 배정주 배종석 배지수 배진화 백윤진
 백인남 백종국 백주영 백지열 백현주 변현정 변희중 서도원 서동천 서유미 서일향 서임선 서한홍 서화진 서효정 석종호 설성호
 성상현 성영은 성우경 손병철 손봉호 손상문 손영일 손용기 손은순 손은정 손진호 손현성 손현화 손화철 송명숙 송병문 송성현
 송성훈 송시섭 송연자 송인수 송준인 송철학 송태현 송택호 송형록 신국원 신대희 신명호 신수현 신영현 신은심 신은정 신은정
 신전수 신창조 신호영 신희선 안계영 안광찬 안보경 안선욱 안선자 안연희 안은상 안은애 안정은 안학서 양낙홍 양민우 양영두
 양지혜 양희환 엄용환 엄현식 여동명 오동근 오동춘 오미영 오성만 오세란 오은석 오진선 오창섭 옥성일 온상원 왕보현 왕창록
 원영대 원종민 위국명 유건호 유동원 유성오 유영신 유영준 유원욱 유인복 유재균 유정윤 유정인 유지는 유창수 유해신 유혜영
 유혜원 유희경 윤다혜 윤두선 윤민영 윤성우 윤신일 윤양숙 윤영석 윤태호 윤한나 윤해균 이국은 이금아 이기웅 이덕한 이동혁
 이만동 이만열 이명자 이미진 이방욱 이병호 이병환 이상구 이상민 이상철 이석형 이선화 이선희 이선희 이성근 이성진 이세령
 이수정 이수정 이수지 이수진 이수호 이슬이 이용아 이용훈 이용훈 이운섭 이원근 이원애 이원영 이원우 이월숙 이윤정 이윤현
 이은성 이은혜 이의용 이의현 이인택 이장규 이재만 이재민 이재우 이재윤 이재현 이정민 이정은 이정화 이종규 이주현 이주환
 이준복 이지욱 이진수 이천화 이철진 이충학 이태훈 이태희 이하정 이하연 이혁재 이현숙 이형조 이화영 이희석 이희열 이희한
 익명후원자 임미정 임성민 임영제 임일택 임종록 임종화 임지웅 임진수 임태규 자정화 장기화 장동민 장미혜 장민규 장서은
 장영상 장원희 장준혁 장창수 장혜경 장희중 전병국 전장덕 전종갑 전희숙 정경숙 정경애 정경희 정규훈 정근영 정다영 정동혁
 정명혜 정명환 정문희 정민경 정병오 정상복 정선우 정성진 정세열 정영미 정양호 정원 정유선 정유진 정윤희 정재훈 정종목
 정철성 정현철 정혜자 정호연 정화선 정화조 조무성 조성돈 조세준 조승희 조옥현 조용환 조우철 조인형 조정미 조준호 조태래
 조현영 조흥식 조희준 주민선 주선경 지삼영 지상섭 지상섭 지연진 진미자 차연주 차정아 채홍석 천근운 천무현 천선희 천수연
 최경구 최경석 최경화 최규창 최동우 최병성 최병제 최상태 최성수 최성숙 최영석 최영애 최우석 최용근 최유리 최윤선 최웅
 최인선 최인영 최정희 최정선 최정원 최지숙 최지영 최지혜 최진호 최현지 최혜경 최혜원 추진연 추현우 태원우 하경열 하만중
 하용정 하현주 한규원 한민근 한민승 한병선 한상호 한석환 한성준 한신영 한유식 한이수 한재환 한지연 한진영 한창희 허남
 허성연 허태영 홍관수 홍대식 홍선희 홍인기 홍인중 홍일선 홍정진 홍종락 홍택주 황병구 황병일 황선영 황성결 황성기

후원 기관 및 교회 (61곳)

교회 | 100주년기념교회 가음정교회 과천교회 관악교회 광고산울교회 광주다일교회 공산교회 남대문교회 남서울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대림교회 덕수교회 동부광성교회 동안교회 목산침례교회 부천평안교회 분당샘물교회 분당소망교회 분당우리교회 빛과소금교회 빛소금교회 새사랑교회 서문장로교회 서울광명교회 서울모자이크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여대학교교회 서울영동교회 서울일본인교회 서울중앙교회 서진교회 성암교회 세신교회 시냇가푸른나무교회 신림제일교회 오륜교회 우리들교회 은혜샘물교회 은혜와영광교회 일원동교회 잠실중앙교회 좋은나무교회 주날개그늘교회 주님의보배교회 주뿔새들넥교회 중앙대학교교회 지구촌교회(목동) 지구촌교회(분당) 청량교회 침산동부교회 향상교회 효성중앙교회 (52개)

기관 | (주)마임 (주)소프트이천 (주)카나 교회개혁평신도행동연대 기윤실교사모임 대주산업 법률사무소우리 보성글로벌(주) 예인법률사무소 (9개)

신규/재개 회원 | 기윤실 운동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4명) 김중락 윤한나 이재우 허태영

5월(7명) 김선희 맹정주 반태경 송태근 안광찬 정다영 최유리

6월(2명) 황영철 조현

후원과 기도로 동역해주시는 회원님,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후원자명단을 합하여 심습니다. (지역기윤실 회원님께서서는 각 지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문형욱 간사 070-7019-3755, mjtwo@naver.com

[후원안내] 기윤실 운동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기후원, 증액신청하기

*오른쪽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후원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기윤실 후원계좌 (예금주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국민 037-01-0504-979 하나 109-228746-00104

*문의전화 02-794-6200, 070-7019-3755 (문형욱 간사)



기윤실 후원회원이 되시면

- ▶ 매년 개최되는 사단법인 최고 의결기구인 회원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집니다. (6개월 이상 후원회원)
- ▶ 분기별 소식지(우편)와 뉴스레터(이메일)을 통해 기윤실 운동과 재정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활동보고(05/02~07/28)

- 02/13(목)-03/13(금) 공명선거감시단 모집
- 05/07(목) 12:00 성서한국 활동가교육 기획회의(기윤실 회의실)
- 05/07(목) 19:00 [온라인긴급좌담]포스트코로나19 시대의 교회: 위협과 기회 (기윤실 회의실)
- 05/08(금) 07:30 제4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화상회의)
- 05/08(금) 10:30 청년상담센터 위드WITH(기윤실 회의실)
- 05/11(토) 11:00 청년센터WAY 브랜딩 자문회의(경복궁역 근처)
- 05/11(토) 21:00 청년센터WAY 기획회의(화상회의)
- 05/12(토) 08:30 서울동남노회 정기노회 명성교회세습반대 피켓팅(미래를사는교회)
- 05/13(수) 19:00 낙태죄헌법불합치 후속활동 회의(기윤실 회의실)
- 05/14(목) 11:00 교회재정건강성운동 퇴직소득세 기자회견(한국기독교회관 에이레네홀)
- 05/15(금) 10:00 캠퍼스 자발적불편운동 기획회의(광운선교회 사무실)
- 05/15(금) 19:00 청년위원회 기획회의(기윤실 회의실)
- 05/19(토) 19:00 청년재무상담지원사업 기획회의(용산역 인근 카페)
- 05/21(목) 10:00 기윤실데이-MYSC 방문(헤이그라운드 성수시작점)
- 05/21(목) 19:00 성서한국 집행위원회 회의(성서한국 회의실)
- 05/22(금) 07:30 <좋은나무> 편집위원회 회의(화상회의)
- 05/23(토) 교회와 함께하는 자발적불편운동 여름 캠페인 "코로나19시대를 살아가는-슬기로운 소비생활"
- 05/25(토) 17:00 성남시 청년센터 '청년이 봄' 방문(청년이 봄 사무실)
- 05/25(토) 19:00 청년위원회 회의(잠실역 인근카페)
- 05/28(토) 20:00 윤리연구소 TF(화상회의)
- 05/29(토) 10:30 청년상담센터 위드WITH 기획회의(대야미역 인근)
- 05/29(토) 18:00 크리스천아카데미 대화모임(서대문역 북성각)
- 06/04(목) 19:30 청년재무상담지원사업 기획회의(기윤실 회의실)
- 06/05(토) 14:00 <좋은나무> 점검시회의(서울영동교회)
- 06/12(토) 07:30 제5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화상회의)
- 06/13(토) 17:00 청년위원회 기획회의(화상회의)
- 06/15(토) 19:00 청년센터WAY 점검회의(기윤실 회의실)
- 06/16(토) 19:00 카이스트 IVF 자발운 강의(화상강의)
- 06/17(수) 10:00 청년상담센터 위드WITH 운영위원회 회의(높은뜻광성교회)
- 06/19(토) 14:30 크리스천아카데미 대화모임(평창동 대화의 집)
- 06/25(목) 20:00 윤리연구소 TF(화상회의)
- 06/26(토) 07:30 <좋은나무> 편집위원회 회의(삼일교회)
- 07/01(수) 16:30 기윤실데이-대표회담(기윤실 회의실)
- 07/01(수) 19:00 낙태죄헌법불합치 후속활동 기획회의(기윤실 회의실)
- 07/02(목) 19:00 청년센터WAY 운영위원회 회의(기윤실 회의실)
- 07/06(토) 19:00 자발적불편운동 기획회의(화상회의)
- 07/07(토) 20:00 제2차 이사회 회의(화상회의)
- 07/08(수) 14:00 청년상담센터 위드WITH 내부세미나(높은뜻광성교회)
- 07/09(목) 12:00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회 회의(속대인근)
- 07/09(목) 19:00 성서한국 집행위원회 회의(화상회의)
- 07/17(토)-07/18(토) 사무처 활동가 워크숍(필그림 하우스)
- 07/17(토) 11:00 청년센터WAY 출범식(높은뜻광성교회)
- 07/17(토) 19:00 낙태죄헌법불합치 후속활동 회의(기윤실 회의실)
- 07/21(토) 14:00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청년인턴 면접(기윤실 회의실)
- 07/24(토) 10:00 상임집행위원회 여름 워크숍(높은뜻광성교회)
- 07/28(토) 12:00 성서한국 활동가교육 기획회의(삼각지 인근 카페)
- 07/28(토) 20:00 윤리연구소 TF(화상회의)

●● 활동계획(07/29~09/30)

- 07/31(토) 07:30 <좋은나무> 편집위원회 회의(미정)
- 08/04(토) 19:00 자발적불편운동 기획회의(화상회의)
- 08/13(목) 14:00 청년상담센터 위드WITH 운영위원회 회의(높은뜻광성교회)
- 08/20(목) 10:30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회 회의(속대인근)
- 09/03(목) 10:00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교단연구포럼(미정)

상장-활동가 여름 워크숍(7/24)



사무처 활동가 여름 워크숍(7/17-18)

사무처 활동가들은 7월 17일(금) - 18일(토) 가평 필그림하우스로 여름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습과 여유, 나눔과 교제 속에 서로를 돌아보고, 자신을 반성하며, 하반기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0년 상반기 서로를 돌아볼 틈 없이 앞을 보고 달려왔기에 자연 속에서 걷고, 함께 먹고 마시며 돌아보는 시간들이 소중한게 다가오는 듯합니다.

2020년 하반기, 한국 교회와 사회 속에 기윤실이 꼭 붙들어야 하는 과제들을 치열하게 고민하여 의미 있는 변화와 성과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및 무더운 여름 속에 회원님들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이팅!



전국기윤실협의회 현황

광주	고경태 운영위원	ktyhbg@hanmail.net
	(61140) 광주광역시 북구 석곡월산길36	
대구	문계완 공동대표	daegu@gmail.com
	(42480) 대구 남구 대명로65 세아타워 5층	
대전	김상호 사무국장	blanma@icloud.com
	(34927) 대전 중구 대흥로177, 2층	
부산	가정호 사무처장	mento123@hanmail.net
	(48730) 부산 동구 중앙대로298, YWCA301호	
익산	이용호 사무처장	iksancemk@naver.com
	(54619) 전북 익산시 동서로222 새소망정형외과 2층	
인천	이진오 실행위원장	greatc@hanmail.net
	(21653)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123번길 17 아이플렉스 813호 담쟁이숲 꿈터	
전남	이광식 사무처장	123kslee@hanmail.net
	(59712) 전남 여수시 여서2로51 은현교회	
전주	김윤배 사무국장	kyb0191@hanmail.net
	(55900) 전북 임실군 신덕면 조월길10-8 삼덕교회	
정읍	정종인 실행위원장	cibank64@hanmail.net
	(56194) 전북 정읍시 충정로30 3층	
진주	한영수 공동대표	comnot@hanmail.net
	(52701) 경남 진주시 순환로528, 원정스카이펠리스 6층, 주님의교회	
청주	홍승표 사무국장	hsp0924@hanmail.net
	(28521)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81, 2층	
LA	박문규 공동대표	email4acem@gmail.com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0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합니다. 본 위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고, 하나님나라를 위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 기독교 윤리가 반듯하며 도덕적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를 발굴하여 시상을 통해 널리 알림으로써 한국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기독교 언론 기관 및 기독교 NGO단체 등에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 하시고 많은 홍보와 좋은 교회를 발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상부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 4곳 (대형, 중형, 소형, 특수목회로 구분해 각 1곳 시상)

- ▶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
- ▶ 기독교 윤리가 반듯하며 도덕적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

■ 신청 및 추천기간 : 2020년 6월 22일(월) ~ 8월 21일(금)

※ 추천은 본 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관의 추천을 받습니다.

- 좋은교회상 수상교회 대표
- 각 교단 사회봉사 및 선교, 교육 담당자
- 기독교 언론기관 대표 및 기자
- 기독교 NGO 단체 대표 등

■ 접수방법

홈페이지(cemk.org)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과 등기우편 접수

- 이 메 일 : sunghun@juanwf.or.kr
- 등기우편 : 21549 인천시 남동구 문화로 247 주안복지재단 배성훈 목사

- 시상식 : 11월 16일 14:00 (월) 예정
- 시상품 : 좋은교회상 기념동판 상장, 상금
- 주 최 :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회
- 주 관 :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 문 의 : 배성훈 목사(010-3001-6321), 010-8888-2884, FAX 032-501-7535
- 후 원 : 한국기독교공보, 기독교언론기관
- 후원계좌: 기업은행 070-013538-04-036